



광주기독병원, 원외대표협의체 회의 개최

광주광역시 책임의료기관인 광주기독병원은 지난달 23일 2025년 제1차 책임의료기관 원외대표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

1일 광주기독병원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책임의료기관 사업의 핵심 협력 주체인 원외대표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필수보건의료 협력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논의의 장으로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2024년 책임의료기관 사업 성과 공유 △2025년 사업 추진 방향 안내 △기관 간 협력방안 논의 등이 진행되었으며, 특히 지역사회 기반의 실질적 협력모델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광주기독병원 공공의료본부 홍건영 기획실장은 “지역 보건의료기관 간 유기적인 연계와 협력이야말로 책임의료기관의 핵심 역할”이라며, “광주기독병원이 중심이 되어 실효성 있는 협력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노병하 기자



광주여대, ‘마음나눔 연주회&토크 콘서트’

광주여자대학교 도서관은 지난달 28일 학교 도서관 2층 나눔라운지에서 ‘마음나눔 연주회&토크 콘서트’를 열고 교내 구성원들과 정서적 공감의 시간을 가졌다고 1일 밝혔다. (사진)

이번 행사는 클래식과 대중음악이 어우러진 연주와 함께, 사전에 접수된 고민 사연을 바탕으로 연주자와 관객이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 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됐다. 도서관이 단순한 학문 공간을 넘어 문화와 소통의 복합문화공간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자리였다.

재학생, 외국인 유학생, 교수, 평생교육원 수강생 등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한 가운데, 진심 어린 연주와 따뜻한 대화가 어우러진 무대는 큰 호응을 얻었다.

행사에 참석한 한 학생은 “도서관에서 이런 따뜻한 콘서트를 접할 수 있어 감동적이었다”며 “학업 스트레스를 음악으로 위로 받은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최동환 기자



조선대, 외국인 유학생 체육대회 성료

조선대학교는 지난달 16일과 23일 이틀간 교내 대운동장에서 ‘2025 외국인 유학생 체육대회’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사진)

이번 행사에는 대외협력처 관계자와 외국인 유학생 150여명이 참여해 축구, 농구 등 주요 경기와 다양한 미니게임을 통해 팀워크와 친목을 다졌다.

미니게임으로는 협동공튀기기, 협동릴레이, 판뒤집기, 달고나게임, 줄다리기 등이 진행돼 큰 호응을 얻었다.

몽골 출신 유학생 둘공 씨는 “축구, 농구와 같은 큰 종목뿐만 아니라 미니 게임 등 다양한 종목이 준비되어 있어서 정말 재밌었다”며 “준비된 볼품이나 대회 구성 등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웠고, 유학생들을 위한 배려가 느껴져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최동환 기자



전남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 실무자회의

전남장애인체육회는 지난달 30일 전남체육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2025년 상반기 가맹단체 실무자회의’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사진)

이날 회의에는 올해 새롭게 임기를 시작한 경기단체와 유형별 체육단체 실무자 40여명이 참석해 조직 및 규정 정비, 우수선수 및 경기용 기구 지원, 보조금 정산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다양한 안건을 논의했다.

전남장애인체육회는 올해부터 도비 예산 1억8000만원을 확보해 상·하반기로 나눠 가맹단체 사무국의 기본경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는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과 단체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조치다.

또한 오는 10월 부산에서 열리는 제4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종합 6위 달성을 목표로 도 대표 선수 선발과 경기력 향상 방안에 대한 논의도 병행했다. 최동환 기자



광주 기상청, 광주·대구 폭염대응 달빛포럼

광주지방기상청은 광주탄소중립지원센터, 대구지방기상청, 대구탄소중립지원센터와 함께 지난달 29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폭염위기사화, 도시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주제로 제2회 광주·대구 폭염대응 달빛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

이 포럼은 폭염 대응이 매우 중요한 두 광역도시가 함께 협력해 관련 지식과 기술을 공유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작했다.

포럼은 이희성 IPCC 의장의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 강연을 시작으로 △ 2025년 여름철 전장 △ 국가 기후위기 적응정책, △ 폭염 상향관리 종합정보시스템, △ 폭염대응 시설 성능·효과 확보 방안 등 분야별 전문가의 주제발표로 진행됐다.

또한 ‘폭염대응 및 기후회복을 위한 광역도시 협력 방안 모색’을 주제로 이창준 전 한국환경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아 전문패널들의 심층토론이 진행됐다. 이정준 기자



광주소방본부, 119소방동요 경연대회 개최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는 지난달 29일 오후 5·18기념문화센터 민주홀에서 ‘제26회 광주시 119소방동요 경연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

올해로 26번째를 맞는 이번 대회는 어린이들이 동요를 통해 꿈과 희망을 노래하고 자연스럽게 안전의식을 배울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이번 대회에서는 유치부 10개 팀과 초등부 6개 팀이 참가해 열띤 경연을 펼쳤다. 대상(1위)에는 뛰어난 가창력과 창의적 표현, 완성도 높은 무대 구성을 선보인 연세어린이집(유치부)과 살레시오초등학교(초등부)가 차지했다.

1위를 수상한 두 팀은 오는 9월 경상남도 창원시 로봔랜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전국 119소방동요 경연대회’에 광주소방안전본부 대표로 출전하게 된다. 정상이 기자

북부경찰-북구시설관리공단, 불법촬영 범죄예방

광주 북부경찰은 지난 5월부터 광주 북구시설관리공단과 협업해 불법촬영 범죄예방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1일 밝혔다. (사진)

이번 캠페인은 공공장소 내 불법촬영 범죄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예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불법촬영 OUT, 안전시설IN’이라는 슬로건으로 홍보 포스터를 활용해 캠페인을 진행한다.

포스터는 북구시설관리공단이 운영 중인 체육시설 10개소에 부착했으며 시설 내부 모니터를 통해 지속적인 송출도 병행되고 있다.

시설관리공단에 따르면 하루 평균 약 1000명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으며 한 달 기준 약 2만1000명 이상의 시민에게 범죄예방 메시지가 도달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용관 북부경찰서장은 “공공시설이 시민 누구에게나 안전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하고, 예방 중심의 치안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승우 기자



한중경제인친선협회의, 업사이클 악기 공연 성료

한중경제인친선협회는 지난달 30일 MSL미디어아트홀에서 중국총영사관의 외교관들과 광주전남 경제인들이 함께하는 ‘크리에이티브아트’ 업사이클 뮤직 공연을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사진)

예술단체 ‘크리에이티브아트’의 이번 공연은 기후환경과 음악의 접목을 주제로, 버려진 쓰레기로 제작한 악기로 그들이 직접 작곡한 환경 관련 내용을 연주함으로써 예술이 전하는 지속가능성의 메시지를 담아냈다.

이번 연주회는 업사이클 악기로 울리는 새로운 음악의 율림이었으며, 기후위기의 시대, 버려진 물건들이 악기로 다시 태어나는 감동을 전했다.

크리에이티브아트는 2020년부터 업사이클 악기 개발과 창작 콘텐츠 기획을 이어으며, 새로운 방식으로 환경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을 이끌어내 오고 있다.

대표적인 창작 사례로는 스버려진 농약분무기로 만든 첼로를 연주하는 유니크첼로파루렛, 스장난감 플라스틱

으로 만든 현악기로 구성된 ‘플라스틱 파르렛’, 피아노 내부에 플라스틱, 병, 캔, 비닐 등 폐기물을 넣고 연주하는 ‘쓰레기 피아노’ 퍼포먼스 등을 이날 선보였다.

공연 프로그램 주요 구성은 1부 이승규 ‘잃어버린 동물의 사육제’로 버려진 쓰레기로 준비된 피아노에서 울리는 음색은 인간 활동으로 인해 사라져가는 생명들을 위로하는 내용이다. 2부 ‘플라스틱 파르렛’은 장난감 플라스틱 현악기로 재현되는 클래식과 창작곡은, 우리가 마주한 지속과 위기의 경계를 표현했다.

또 이날 연주회는 MSL회사가 사회환원을 위해 공장 한켠에 설치한 음악홀에서 진행돼 연주 공간이 음악회의 주제에 부합했다.

이날 공연장에는 중국총영사관(구 징치 총영사)의 외교관 12명과 함께 다양한 분야의 오피니언 리더들 50여명이 참여했으며 정용성 선생의 외손자인 세전문화유한공사 김봉 총경리도 참석했다. 박소영 기자

BTS, 12주년 기념 ‘페스타’… 킨텍스에서 열린다

그룹방탄소년단(BTS)이 데뷔 12주년을 기념하는 축제를 연다. (포스터)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1일부터 2주간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BTS 페스타’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BTS 페스타’는 2013년 6월13일 데뷔한 방탄소년단이 매년 데뷔일을 기념해 개최하는 축제다.

올해는 이달 13~14일 경기도 고양 킨텍스에서 총 20여개 부스를 운영하며 팬들에게 추억을 선사한다.

멤버들의 음성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보이스 존’(VOICE ZONE), 멤버들의 애장품을 감상하는 ‘BTS 라커’



(BTS LOCKER), 멤버들이 선정한 음악을 들어보는 ‘스포티파이 플레이리스트’ 등이 마련된다. 연합뉴스